

David Korty

23 April - 30 May 2009

[투데이갤러리] 데이비드 코티의 '무제'



Untitled(figures with red benches), oil on linen,
61 x 61 cm, 2009

1971년생 미국 작가 데이비드 코티는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 속에서 소재를 찾는다.

작가는 그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을 카메라로 찍어 이를 캔버스에 옮긴다. 사진을 찍을 때는 찍히는 대상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재빠르게 촬영해 아주 자연스럽게 평범한 풍경을 포착한다.

그의 작품에는 전화기를 들여다보거나, 줄을 서 있거나,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세한 묘사는 생략된 채 단순하게 표현돼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대도시의 북적대는 모습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흥분을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코티는 현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러나 심각하지 않게 보여준다. 작가는 현대 도시인의 삶을 모던하고 심플하게 표현해낸다.

아시아투데이 전혜원기자